

大邱日報

02월 03일 003면

계약직 공무원 모집

고학력자 대거 몰려

대구시의회의 지방전임계약직(다급) 공무원 모집에 석·박사급 고학력자가 대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구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일반행정과 법학, 사회복지, 경제산업, 도시개발 및 건축분야에서 각 1명씩 선발하는 이번 모집에 22명이 지원해 4.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학력별로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박사학위 소지자 8명, 학사 4명의 순이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정책연구활동을 돕는 업무를 보게 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수가 크게 많지 않은데도 고학력자가 몰린 것은 이례적”이라며 “해당분야 전문 인력인 만큼 이들이 채용되면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정화기자